

‘신념의 조인’ 딘 헤스 대령 소개

바우트윈 부대장으로 6·25 전쟁의 영웅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



미 공군대령 딘 엘머 헤스(Dean Elmer Hess)는 6·25 전쟁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91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딘 헤스는 어린 시절 종교와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 목사가 되기 위해 매리에타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클리블랜드에서 목사로 임명되었으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후에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프랑스에서 전투조종사로 활약하였으며, P47 썬더볼트를 조종하며 총 63회의 전투임무를 수행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소령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그는 미국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의 F-51 전투기 훈련과 조종사 양성을 위해 창설한 바우트윈 부대의 지휘관으로 발탁되어 1950년 7월 2일, 한국공군 조종사가 몰고 온 10대의 무스탕 전투기와 함께 대구기지에 도착했다. 이후 6·25 전쟁 중 250여회의 전투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낮에는 전투출격을 하고 밤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황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비행하던 F-51 무스탕 18번기에는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는 그의 평소 좌우명인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I fly by faith.)’를 한국 공군 정비사 최원문 일등상사가 한글로 번역하여 써 넣은 것이라는 일화가 있다.

딘 헤스 대령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1951년 1·4후퇴 당시 1000여명의 전쟁고아를 제주도로 후송시킨 ‘유모차 공수작전(Operation Kiddy Car Airlift)’이 있다. 미 5공군 목사이던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과 함께 C-54 수송기를 이용하여 수많은 전쟁고아를 살릴 수 있었으며, 전쟁고아였던 소녀를 입양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자서전 ‘전송가’를 쓰고, 이를 영화화하여 얻은 수익금

을 전액 한국 보육원에 기부하는 등 후원을 지속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딘 헤스 대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2015년 98세의 나이로 오하이오에서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공군에서는 제주도 항공우주박물관에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5월에는 제 10주기 추모식이 제주도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이후 한미안보연구회 홍성표 박사 주관, 공군발전협회 후원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유족인 세 아들을 초청하여 딘 헤스 대령 유가족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여름철 건강나기

체온 조절, 수분 섭취, 피부 보호 등이 핵심

지구 온난화로 유례 없는 더위가 기승이다. 여름에는 낮 시간이 밤보다 길어 활동량은 증가하지만, 무더위로 식욕은 저하되고 땀을 많이 흘릴 뿐 아니라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쉬우므로 전신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 피부노출이 많아지므로 햇빛과 각종 해충의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여름철 건강나기에 대해 알아보자.

● 고체온증과 냉방병

무더위가 지속되면 체온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노년기에는 체온조절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고체온증이 잘 생긴다. 특히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질환, 갑상선병, 신장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열사병으로 불리는 고체온증에 걸리기 쉽다. 이를 피하려면, 한낮 더운 시간에는 햇빛이 비치는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더운 한낮에 술을 많이 마시면 고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음주는 절제하여야 한다. 대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분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반면 냉방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하루종일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생활

하면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 의욕상실이나 무력감 등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실내온도와 실외온도가 5-10도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냉방기 온도를 조절해야 하고 1-2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햇빛에 의한 피부질환

뜨거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여러가지 피부손상이 생긴다. 노출된 피부에 습진처럼 가렵고 따가운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야외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냉습포를 해주고 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강한 햇빛은 피하고, 야외나 해변가에서는 흐린 날에도 햇볕노출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야외활동 전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야외로 나가기 30분 전에 발라주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어야 보호효과가 유지된다.

● 기상상황 수시 확인

야외활동 전에는 폭염특보, 기온 등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월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띠동갑은 친구고 띠띠동갑은 스승이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정책발전전문위원장)



1967년 서강대 영문학과 학생이었던 조안리(1945)와 학장을 지낸 케네스 킬로렌(1919) 신부의 결혼은 한국 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 이었고 스승과 학생 사이였으며 게다가 신부님 신분이었으니 당시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파괴한 대사건이었다. 결국 이들은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조안리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다시 귀국하여 홍보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 여성신문 이사장등으

로 큰 활약을 하였다. 무엇보다 앞서가는 여성리더로서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

요즘은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도 늘어났고 세대차이를 넘는 친구문화도 생기고 있다. 예전에는 몇살만 더 많아도 친구되기를 거부하고 꼭 선배 대우를 받으려는 문화가 있었다. “내가 네 친구냐?”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흔히 듣던 말이다. 장유유서라는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장유유서를 파괴해야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다.

띠동갑은 보통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말한다. 띠동갑이란 띠는 같은데 나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24살 차이가 나거

나 36살 차이가 나도 띠동갑이다. 24살 차이가 나는 사람은 ‘띠띠동갑’이라고 부르고 36살 차이가 나는 사람은 ‘띠띠띠 동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띠동갑이나 띠띠동갑은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12살 나이 차이가 나면 대선배이고 24살 차이가 나면 아버지 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띠동갑을 만나야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다. 12살 차이가 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이 다름이 만나면 새로운 자국이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더구나 첨단기술 변화속도가 빠르다보니 나이가 젊을수록 신기술 사용능력이 뛰어나다. 인공지능이나 신기술은 나이트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젊은이는 띠동갑 선배에게서 인생 경륜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1922)과 법정스님(1932)은 10살 차이지만 종교 사상 나이를 초월하여 서로 존중하는 벗으로 교류하였다. 김수

환 추기경은 “스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 하였고 법정스님은 “그분이 계신 것 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고 하였다. 종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장배경도 다른 두 위인이 친구처럼 교류하였으니 얼마나 큰 우주가 형성되었을까?

자본주의의 현인(賢人) 소리를 듣는 워렌버핏(1930)과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1955)는 25살 차이가 난다. 아버지와 아들벌이다. 이들은 나이차를 넘어 막역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나는 궁금한 일이 있으면 한밤중에도 워렌 버핏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하고 있다” 이들은 25살 차이 덕분에 서로 다른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동갑내기끼리만 어울리며 살면 우주가 좁아진다. 띠동갑은 막역한 친구로 사귀고 띠띠동갑은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요즘 새파란 젊은이들을 보면 모두 스승으로 보이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이순신(李舜臣) 제독과 경천위지(經天緯地)

전대길 (예 하사, 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경영한다”는 “경천위지(經天緯地)”는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아니다. 인간이 지닌 재능의 극치를 말하며

그 경지가 마치 “하늘을 날실 삼고 땅을 씨실 삼아 천지를 짜듯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뜻한다.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이 표현이 찬란하게 쓰여진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제독이다. 1598년 11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조·명(朝鮮) 연합군이 대승을 거둔 후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陳璘)’은 명 황제에게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이렇게 보고했다.

“이순신은 경천위지지재(經天緯地之才)요, 보천육일지공(補天浴日之功)이 있는 자이옵니다.”

경천위지지재, 곧 하늘과 땅을 다스릴 재능을 가졌고, 보천육일지공, 하늘의 구멍을 메우고 태양을 씻는 위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니, 극찬 중의 극찬이다.

중국 고대 신화 속 여신 ‘여와’가 하늘을 보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이 말은, 누군가의 공로를 ‘천지를 회복한 위업’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평가였다.

이 칭호는 명나라 황제의 이름으로 내려졌으며, 이순신 장군은 그 공으로 명나라의 최고 영예 중 하나인 <팔사품(八賜品)>을 하사(下賜)받았다. 이는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국보로 보관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진린이 처음부터 이순신을 존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명재상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는 진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다. “성질이 사나워 남과 자주 거슬렀으며, 군사들은 잔인하고 난폭하여 제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가 전장에서 이순신과 함께하면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진정한 ‘지도자’였다. 냉철한 판단, 탁월한 전략, 강직한 성품, 그리고 전우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까지 진린은 끝내 이순신의 사람됨에 깊이 감복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을 ‘경천위지지재’라며 조선 최고의 영웅으로 천거(薦擧)한 것이다. 이순신 제독은 전략가이기 전에 먼저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확한 <4대 보고 원칙>을 지시했다. 그 내용인즉 “본 것은 본 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보고하라.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은 일언반구도 말하지 말라”이다.

이 간단명료한 4가지는 단지 군사보고 원칙이 아니다. 이순신 제독이 일평생 목숨처럼 실행한 인생의 윤리이자 가치관이었다. 허언과 억측, 과장이 난무하던 난세 속에서 그는 정직함과 절제를 무기로 싸웠다. 한 마디로 <정직, 겸손, 열정>의 표상(表象)이었다.

이순신 제독은 일본이 먼저 알아본 영웅(英雄)이다.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을 가장 먼저 국제적으로 알린 것은 적국(敵國) 일본이었다. 조선 말기까지도 충무공 이순신은 단지 4명의 ‘충무공(忠武公)’ 중 한 명일 뿐이었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를 다시 쓴 사건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벌어졌다. 일본은 대마도 해협에서 세계 최강의 러시아 발틱함대를 궤멸시키며 러일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일본 해군의 총지휘관이자 영웅은 도고 헤이치로(東郷平八郎)였다.

전승 후 도쿄에서 열린 대규모 축하연에서, 한 참의원이 이렇게 말한다. “도고 제독은 가히 영국의 넬슨이고, 조선의 이순신입니다.” 그러자 도고는 즉시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영국의 넬슨과 비교해 주는 것만도 과분한데, 어찌 감히 이순신 장군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구두끈도 묶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 겸양의 미덕을 나타낼 때 자주 인용되는 관용구로 자리 잡았다. 도고는 실제로 이순신을 철저히 연구한 인물이었다.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항해일지, 전투 기록, 패전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방대하게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했다.

일본 해군은 이순신의 전술과 전략을 낱알이 분석하고 해군 교육에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도고 제독도 이순신을 군신(軍神)

으로 존경하게 된 것이다.

전장의 이순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충무공전서” 제15권에 수록된 “진중음(陣中吟)”은 전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읊은 충신의 시이다.

“임금의 행차는 서쪽으로 멀어지고, 왕자는 북쪽에서 위태롭다. 외로운 신하는 나라를 걱정하고, 장수는 공훈을 세울 때이다.” 이는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시 중 하나인 ‘진중음(陣中吟)’은 그야말로 충혼의 절창이다. 비 내리는 전선의 밤, 고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맺힌 마음을 읊는다.

“산하는 참혹하고, 새와 물고기마저 슬피 운다. 나라의 운명은 어지럽고, 바로 세울 이는 없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자신의 분노와 무력감을 읊은 이 시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마지막 출정, 마지막 숨결을 느껴보자. 1598년 12월 16일(음력 11월 19일) 새벽, 이순신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하려 온 일본 수군 500여 척과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조선 수군은 적선 50여 척을 격파하고, 진린의 명 수군과 함께 일본군을 섬멸한다. 전투 중 이순신은 관음포 근처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는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장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휘를 멈추지 않는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말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전투가 끝난 뒤 조선과 명나라 수군은 도주하는 일본 잔여 함대를 추격해 대부분을 나포했다. 전투는 대승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유해는 처음 경남 노량에 임시 안장되었다가 1599년 아산 금성산으로 이장되었고, 1614년에는 어라산(현 아산 현충사 부근)으로 다시 옮겨졌다.

우리들이 이순신 제독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삶 전체로 정직과 헌신, 정의와 용기를 실천한 인물이었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정신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천위지의 재주로 하늘과 땅을 짜고, 보천육일의 공으로 무너진 하늘을 메웠다. 위대한 영웅은 무기를 들기 전에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그 진실을 이순신이 몸소 보여주었다.

하늘에 달은 날갯짓

이영하(예 중장, 공사22기, 전 레바논대사)

하늘을 향해 펼친 날개,
그 첫날의 설렘은
구름 속 숨겨진 비밀을 찾는 아이처럼
끝없이 파란 하늘에 나를 던졌네.

바람은 내 편이었고, 햇살은 길을 비추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
날갯짓 하나에 담긴 작은 용기는
하늘 끝에 달을 꿈의 씨앗이 되었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순간,
구름을 가르며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네.
하늘은 언제나 나를 부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날갯짓은
내 안에 숨어 있던 자유를 일깨웠네.

끝없이 펼쳐진 푸른 공간 속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났네.



작은 거인 보빠이 이상용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주)루츠팀 회장)



개그맨 보빠이 이상용(1944~2025)이 2025년 5월 9일 별세했다. 그는 필자의 대전고등학교 선배로 연말 고등학교 송년행사에 단골로 오시던 분이였다. 그는 한 줄만 읊어도 청중이 다 쓰러진다고 자기는 레퍼토리가 3만5000개나 있다며 좌중을 들었나 봤다 했다.

그는 1944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을 거쳐 육군 ROTC 장교(5기)로 임관했다. 1971년 CBS 기독교 방송 MC로 데뷔한 뒤 1975년 KBS '모이자 노래하자'를 통해 '보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보빠이'라는 별명은 어려서부터 병약한 신체를 극복하고자 근육을 키우고 바디빌딩(Bodybuilding)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 만화영화 '주먹대장 보빠이'가 인기리에 TV에 방영되고 있었는데 "시금치를 먹으면 알통이 커지며 힘이 세진

다"는 캐릭터에서 유래되었다.

그의 인기는 1989년부터 MBC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군 사병의 어머니를 몰래 초대해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었다. 프로그램 시작 때 흘러나오는 노래 '그리운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플 때로" 시작되면서 시청자와 사병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어머니."로 끝난다. 방송에서는 무대 뒤에 있는 초대된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준 뒤, 자신의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MC 이상용이 소리친다.

이때 많은 장병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고 외쳤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무대로 걸어 나오면 모자(母子)가 서로 끌어안고 상봉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는 TV를 시청하는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당시의 '우정의 무대' 프로그램은 전국민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며 전국민의 MC가 되었고 1973년에 '한국어린이보호회'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여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러나 1996년 법인 운영에 성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정의 무대 진행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듬 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프로그램은 이미 폐지되었고 방송계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가 고등학교 연말 송년회에 와서 자기가 창작했다며 남긴 몇 가지 재치 넘치는 유머 시리즈 세 개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로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통점 3가지를 알아? 하며 진지했다. 첫째는 다 공주다. 둘째, 모자를 좋아한다. 셋째, 전부 공을 가지고 논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 공을 가지고 놀잖아!" 두 번째로 "내가 13번이나 중앙정보부에 불려 갔어. 가면 웃기고 나와야 해.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뭘지 알아? 파란만장야. 파란 거 만장이면 1억원이니, 돈이야 돈!" 세 번째로 그는 노숙자들 앞에서는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라.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어"라며 웃음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는 법인 운영의 성금유용 누명사건에서 무죄 입증 받은 후에는 전국적인 강연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전국 시 군청, 노인회, 병원, 학교 등 전국을 누비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전국 노래자랑 MC 송해 선생(1927~2022)은 그에게 "네가 작은 놈 같았으면 건드리지도 않았다. 건드리는 것을 보니 많이 컸구나. 내 후임으로 네가 최고야" 하며 그를 위로 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많은 이들을 가슴 뭉클하게 만든 건 그의 남다른 기부 방식이었다. 그는 매일 은행에서 1,000원짜리 신권 100장을 뽑아 하루 100명에게 나눠주며, 매달 300만원을 선행에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러 가지 선행으로 그는 국민훈장 동백장(1987), 체육훈장 기린장(1990),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1998) 등을 받았다.

그는 노인병을 앓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쪼그라든 마음을 펴주고 싶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 많아 행복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는 세상이 어려울 때 웃음과 희망을 주고 떠난 작지만 큰 사람이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작은 거인 보빠이 이상용이 항상 희망과 기쁨을 국민들에게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값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안호원 (예 병장, 215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공군사랑회 부회장)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 안의 열등감이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는 왜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할 일이다.' 그제 거북이의 삶이었다. 7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알았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잘 알고 있듯 토끼가 거북이를 앞잡아보고 낮잠을 잤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북이가 진짜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의 느림만 보고 여유를 갖고 달리기 한 반면에, 거북이는 오직 정상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토끼와는 상관없이 오직 목표를 향해 꾸준함을 보였다. 흔히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일희일비(一喜一悲)'로 울고 웃는다.

그렇게는 살지말자. 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나 이제 가노라, 나의 시간이 다 하였노라. 땅은 나를 돌려 보내고 하늘은 나를 불러 이끄노라.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며, 사랑을 알았고, 진리를 향해 걸었노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으려 가노라. 죽음이며, 너는 나의 문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로다."

이 시는 톨스토이가 마지막 남긴 시로써 초고, 편지, 일기의 여러 구절들을 엮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짧은 시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선 레프 톨스토이의 영혼이 세상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

부와 명예, 문학적 명성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알았고, 진리를 향해 걸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여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귀족에서 구도자로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부(富)와 교육, 문학적 성공을 일찍이 경험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그를 세계적인 문호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치열한 내적 고뇌는 "참회록:(Confession)"이라는 작품으로 남았고, 그 책에서 그는 신앙 없는 삶의 무의미함을 고백한다. 톨스토이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성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삶의 지표를 찾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왜 예수를 찾았는가? 그가 만난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神)이 아니라, "원뿔을 때리거든 오른뿔도 돌려대라."고 말하며, "악(惡)을 악(惡)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톨스토이는 그런 예수에게서 사랑과 용서, 무저항과 평화의 윤리를 보았다. 그는 말한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는 귀족의 옷을 벗고, 수공 일을 배우며, 마차 대신 맨발로 걷고, 가난한 자와 함께 밭을

갈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글로 옮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 행함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했다. 마지막 선택! 마지막 시! 죽음이 가까워졌을 무렵, 그는 결국 가족과도 떨어져 한밤중 몰래 기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다. 세속과 결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어 기차역에서 쓰러졌고, 한 작은 간이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유언처럼 전해지는 이 마지막 시는, 고통과 갈등의 세월 끝에 마침내 얻은 평화의 숨결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으려 가 노라."는 이말은, 단지 죽음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영혼이 지향하던 완성이었다.

우리에게 남긴 것! 톨스토이의 마지막은 끝이 아닌 완성이었다. 그는 위대한 작가로 기억되기보다, 진리를 추구한 한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버릴 수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날, "나는 진리를 향해 걸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그는 "세 개의 의문"이란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가 82세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이런 일기를 남겼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

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모두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걷는 사람'은 목적 없이 그저 걷는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발을 옮기지만, 결국 제자리만 맴돌게 된다.

반면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품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간다. 힘이 들 때면 잠시 멈춰 쉬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이어 간다. 그 목적이 자신을 지탱해 주고, 삶에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발걸음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이 될 수 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젊은 이들 사이에 누렇게 말라 죽어있는 쪽정이처럼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다음 순서인 죽음을 우린 어떻게 대면할까?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린 정직해져야 한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해야 할까? 답은 "못 찾은 거다. 이유는 죽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후회를 한다. 후회는 선택한 뒤에 따르는 경험과 연륜에 따른 진솔한 반성, 돌이킬 수 없는 애잔한 마음의 표현이다. 혹여 후회와 자책으로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지지말고 힘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도 소소한 감사와 소소한 사랑으로 채우며 기쁨을 누리는 선배. 후배 전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남은 삶 열심히 살며 행복하기를 기원해 본다.



회원가입 안내

■ 공군전우회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회원구분

구 분	자 격	회 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20만원(1회)
준회원	홈페이지 가입(회비미납자)	

△가입절차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 '회원가입'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전우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 또는 전국 지부/지회를 통하여 가입

△회비납부 (입금안내)

- 우리는행 319-260099-01-001 (예금주/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예금주/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지로용지 동봉)
-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공군발전협회

△회원자격 : 기관, 단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회원구분

구 분	자 격	회 비
정 회 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1회)
준 회 원	홈페이지 가입 후 회비 미납자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체	약정금액
일반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원	-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회원가입'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회비납부 (입금안내)

- 우리는행 1006-301-276447 (예금주/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 (예금주/공군발전협회)

■ 회원혜택(공통)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공군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공군전우회 중앙회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별도신청)

■ 문의안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군)923-7590, 923-7541 ·Fax(02)825-8460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

▶신분별/직능별단체

단체명	회 장	사무(총)국장
공군항공고총동창회	김진홍 010-5187-3625	방정원 010-8618-4558
공군2사총동문회	김장회 010-5463-1786	김종현 010-4801-7034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010-6233-7231	이상목 010-9382-1084
조종간부회	김남선 010-3711-5778	신수연 010-9491-7831
황 성 회 (준사관)	장 군 010-5073-9424	신승진 010-5175-3051
원 우 회 (부사관)	차주성 010-3548-2893	정수일 010-5096-6150
군무원회	정화일 010-8753-6357	이 원 010-4273-7005
인터넷전우회 (로카피스)	이중근 02-3774-5876	이병권 010-5071-4763
공군통역장교회	심 건 010-9175-3886	김장환 010-4117-7158
유치곤장군보존회	양덕모 010-4536-1545	-
순직조종사부인회	송우영 010-9020-8358	박종희 010-4021-3616

▶국내지부/지회

지 회	회 장	사무국장
광주시지부	손정문 010-3601-3899	김승식 010-3603-0724
대구시지부	남상식 010-3080-6432	정규채 010-8206-7712
대전시지부	김호중 010-5409-6881	신두철 010-3141-2207
부산시지부	김선호 010-3590-2852	김경태 010-5071-2286
인천시지부	최용주 010-9855-2930	윤양로 010-7749-7668
제주도지부	강형근 010-8660-0370	김상헌 010-9687-3412
강릉시지회	최원규 010-8885-9092	김봉환 010-5073-9353
경주시지회	정진표 010-8364-3060	유시현 010-6511-0006
군산시지회	반영곤 010-5173-2975	고석권 010-8645-4105
군위군지회	은헌기 010-9460-1068	조임식 010-3441-7527
김해시지회	제해언 010-4560-0622	김민준 010-8208-7797
동두천지회	김정수 010-5036-5133	김인국 010-8722-5831
문경시지회	한상식 010-5769-4355	김동성 010-9795-4210
사천시지회	박갑용 010-9676-1907	문상경 010-6579-0220
서산시지회	홍만진 010-6422-9440	도임구 010-5081-7799
성남시지회	박문석 010-3768-1234	안제성 010-3631-0120
수원시지회	송요정 010-3319-3744	이혁재 010-4678-4065
속초시지회	권영화 010-3722-1777	김창혁 010-4314-0891
아산시지회	정순웅 010-5422-6945	이석종 010-8505-9802
영월시지회	장호근 010-5363-0748	이종구 010-8901-4827
양평군지회	김수영 010-2771-2772	김재학 010-3011-9693
영주시지회	허기영 010-3840-8381	석두환 010-9076-9002
이천시지회	한상욱 010-3485-9678	김기창 010-4760-8217
익산시지회	최병훈 010-2686-6111	차경수
예천군지회	양찬모 010-9191-8949	조원희 010-3548-0584
의왕시지회	이석우 010-5245-4639	이병래 010-8721-2984
원주시지회	신종균 010-5269-9262	박광호 010-5361-6266
전주시지회	최석수 010-5630-0160	윤한호 010-3676-9523
진주시지회	조현철 010-3591-7378	강석동 010-3872-4292
창원시지회	김춘식 010-4170-8361	이병희 010-4585-8547
청주시지회	이균신 010-3576-9626	한일민 010-7774-3191
충남서부지회	조봉환 010-2253-7113	이선백 010-3029-3523
충주시지회	조동주 010-8441-1200	호웅기 010-5078-7656
철곡군지회	이진권 010-3503-0321	장병찬 010-8584-7070
철원군지회	구한서 010-6372-9332	임연재 010-5352-5381
포천시지회	신건영 010-5365-5647	하명균 010-8830-3816
평택시지회	왕관현 010-5256-0188	김근찬 010-2755-2071
화천시지회	김철준 010-6276-9889	이영수 010-8891-1393

△해외지회

지 역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조지아	백남오	770-622-9227	
미국 덴바	김봉희	303-750-7476	
미국 샌디에고	이세중	760-845-12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김영본	919-946-6614	af66809@hotmail.com
미국 시카고	이근효	847-439-1168	
미국 뉴 욕	임재빈	201-233-6622	
미국 워싱턴	한수웅	301-806-2976	suhan317@yahoo.com
미국 L A	심인태	213-700-2566	intaishim@hanmail.net
미국 필라델피아	서장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두용	510-745-7874	
미국 하와이	장재혁	808-947-7582	9477582@gmail.com
캐나다 동부	위정남	647-802-9981	
캐나다 서부	홍창의	604-463-4129	
브라질 상파울로	박승문	5511-222-9325	
아르헨티나	전영표	11-4632-8139	
호주 시드니	윤석효	0417-049-722	